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톡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15	215	498	119
(수난 기약 다다르니)	(영원하신 성부)	(예수여 기리리다)	(주님은 우리 위해)

제 1독서 | 창세 9,8-15

화답송 |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좌)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우)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좌)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 2독서 | 베드로 1서 3,18-22

복음 환호송 |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마르코 1,12-15

영성체 후 묵상 |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상이 우리의 광야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만나게 되는 유혹, 고통, 허무함의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광야에서 유혹을 겪으시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마르코 1:12-15>

The Spirit drove Jesus out into the wilderness and he remained there for forty days, and was tempted by Satan. He was with the wild beasts, and the angels looked after him. After John had been arrested, Jesus went into Galilee. There he proclaimed the Good News from God. 'The time has come' he said 'and the kingdom of God is close at hand.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Temptation of Christ>

- Ludwig Ferdinand Schnorr von Carolsfeld, 1847

그때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Short Reflection>

In the wilderness, Jesus struggled to remain true to his baptism. Right after his baptism, the heavens were opened, and Jesus saw the Holy Spirit come down upon him. And he heard God the Father' saying, 'You are my Son, the Beloved, with you I am well pleased'.

It was Jesus' relationship with God the Father, his faithfulness to God's calling, that was being put to the test. The gospel reading says that he was 'with the wild beasts' in the wilderness. The evangelist Mark may be using the image of 'wild beasts' to suggest the difficulty of the test and the intensity of the struggle that Jesus experienced.

Lent is the time when we struggle to remain true to our baptism. It is the time when we make a special effort to get back onto the path that our baptism calls us to take if we have drifted from it. Today's reading says that in Jesus' struggle with the wild beasts, he had the help of angels. The angels looked after him. The angels are the expression of God's protective, supportive and caring presence. Jesus was not alone in this time of spiritual testing in the wilderness: God the Father was with him.

In those times when we find ourselves in a spiritual wilderness, the angels are there looking after us too. The Lord is also with us to comfort and strengthen us.

The one who was himself tested will help all of us in those times when our own faith is put to the test.



교황님과 함께하는 교리 교육 - '청원이 받아들여졌다는 확신 (2)'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느님 나라에 부합하는 선을 구할 때,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왜 하느님께서 때는 때때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차분히 복음서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 생애의 이야기들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육의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치유해 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복음서에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친구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며, 병든 아들과 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 그들 모두의 기도는 고통으로 가득 찬 기도였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응답이 즉각적인 반면, 다른 경우에는 시간을 두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딸을 위해 예수님께 청원하는 가난한 여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마태 15,21-28). 그녀는 또한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약간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굴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딸의 건강이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 말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안에서 용기입니다. 또한 친구 네 명이 들것에 들고 온 중풍 환자를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중에 육신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마르 2,1-12 참조).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문제의 해결책이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도 각자의 삶 안에서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은총과 기적을 여러 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방식에 따라 잘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이로의 딸의 치유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마르 5,21-33 참조). 숨차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청을 즉각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 또 다른 치유(하열하는 부인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딸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마르 5,36). “계속 믿으라.” 왜냐하면 믿음이 기도를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를 죽음의 잠에서 깨우실 것입니다. 한동안 아이로는 작은 믿음의 불꽃만으로 어둠 속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제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은총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믿음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난한 이들과 당신 사람들의 믿음 앞에서 버티지 못하십니다. 그 믿음 앞에서, 아주 특별한 애뜻한 사랑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경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겻세마니 동산에서 아버지께 바치신 기도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서 저를 멀리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성자께서는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토요일은 마지막 장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날, 곧 주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십시오. 악은 마지막 날의 주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마지막 날의 전날의 주인입니다. 날이 밝기 전, 밤의 가장 어두운 순간의 주인입니다. 마지막 날의 전날인 거기에, 유혹이 있습니다. 거기서 악은 우리에게 자신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보았느냐? 내가 이겼다!” 악은 마지막 날의 전날의 주인입니다. 반면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악은 마지막 날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마지막 날의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은 오직 하느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며, 구원에 대한 모든 인간의 열망들이 성취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이 겸손한 인내를 배우시다. 종종 마지막 날의 전날은 매우 끔찍합니다. 인간의 고통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공지 사항

1. 사순시기 고해성사 권고

사순시기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느님 앞에 겸손되이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며,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초대는 고해성사에서 드려드립니다.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2.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주일 미사 전, 2시 30분에 시작

2월 18일(주일) - 사목회

2월 25일(주일) - 마르코반

3월 3일(주일) - 요한반

3월 10일(주일) - 루카반

3월 17일(주일) - 마태오반

3. 사순시기 전례 안내

사순시기 동안에는 미사 중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바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영광송'이 찬미와 기쁨의 노래이기 때문에, 주님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며, 참회와 속죄의 시기인 사순시기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렐루야'는 히브리어 '알렐(hallel : 찬미하다)'이란 동사의 명령형 '알렐루'(hallelu)와 하느님이란 말의 야훼의 약칭 '야'(JAH)의 합성어이며, 그 의미는 "야훼 하느님을 찬미하라"라는 뜻입니다. 알렐루야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기쁨과 환희의 노래이므로 사순시기 전례에서는 생략됩니다.

4. 사순시기 1박 2일 피정

'성 클레멘트 피정 센터'에서 2월 24일(토)부터 25일(주일)까지 진행되는 피정에 총 16분께서 참여하십니다. 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2월 4일	유아·청소년: 19명	성인: 47명
2월 11일	유아·청소년: 38명	성인: 76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2월 18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다음주 (2월 25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2월 18일)	마르코반
다음주 (2월 25일)	마태오반

| 우리들의 정성 | (2월 10일 ~ 2월 16일)

봉 헌 금	\$620			
교 무 금	\$640			
권모순	김요한	김정수	김태룡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재희
장일한	조성민	조성희	주정자	

| 기도 지향 |

* 세상을 떠난 모든 영혼을 위해
*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를 위해
* 예비자교리 중인 박서영 자매님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